

주식 가격제한폭 오늘부터 ±15% → ±30% 확대

■ 주간 증시 포커스

FOMC·가격제한폭 확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시점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이 ±15%가 유지된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정적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정지)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전일 증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추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CB 제도는 8%, 15%, 20% 등 지수하락을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된다. 지수가 8% 이상 빠지면 전체 장을 20분간 중단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등

가격 안정화 보완 장치

코넥스시장은 15% 유지

파생상품은 8~60%로

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한다. 지수 15% 이상 하락·1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시에도 마찬가지로 조치가 취해진다. 지수 20% 이상 하락·2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은 상품별로 ±10~30%에서 ±8~60%

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파생상품시장 거래도 주식시장에 연동해 CB가 단계별로 발동되며, 가격 변동범위 확대에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도 도입된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맞춰 시장 감지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추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추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추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거나 거래량이 실제로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초기에 상장사에 조화공시를 요구한다. 또 조화공시 요구 종목 중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추가 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크면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상한가 폭 확대도 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변동성 확대도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미 주시위는 던져졌다. 증권업계도 전산 시스템 개편과 신용거래 관련 담보유지비용 조정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투자자들은 가격제한폭 확대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월요일 장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형주는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가격제한폭 시행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2일 코스닥지수의 하락 폭이 코스피보다 컸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주식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수출 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에 따른 내수침체 우려로 국내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른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를 3개월만에 전격 인하했다. 하지만 지난주 주식시장은 미국의 6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와 가격제한폭 확대 등 시장의 주요 변수가 예정되어 있어 경계심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코스피지수는 2050선을 힘들게 방어하며 마감했다.

3월 기준금리 인하 때는 주식시장이 상승행진을 이어가며 장기박스권을 돌파했지만 이번 금리인하는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마지막 금리인하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시중자금이 당장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유입될지는 향후 발표될 경제정책 추이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증시의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 매수세가 6월들어 매도 일수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국내수출경기 둔화로 대형 수출주의 부진과 메르스사태로 인해 소비심리가 둔화되면서 유통·여행등 산업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증시는 그리스 구제금융협상 내용에 따라 일회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 초반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경제개혁이행시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으로 상승흐름을 보였지만 주 후반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그리스는 이날 말까지 구제금융 미집행분 72억 유로(약 8조9809억원)를 제공받지 못하면 IMF에 부채 16억유로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현재 국내주식시장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4월이후 기간조정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라는 처방전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 정부에서 6월 말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내용에 다각적인 경기부양책이 마련되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 국내주식시장은 국내의 변수로 인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5일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개별종목은 재료나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신용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반면, 실적에 양호한 종목과 우량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는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 15일부터 바뀌는 추가 안정장치

기존 ±15%	구분 가격제한폭	변경 ±30%
1일1회(코스피가 전일보다 10% 이상 빠지면 20분 거래정지)	서킷브레이커	단계별 서킷브레이커(코스피가 전일보다 8%, 15%, 20% 이상 빠지면 3단계로 발동. 마지막엔 장 종료)
동적완화장치(특정 종목이 직전체결가 기준 3% 이상 가격 급변시 2분간 거래정지)	변동성 완화장치	동적장치에 정적완화장치 추가(특정 종목이 직전 단일가 기준 10% 이상 가격 급변 시 2분간 거래정지)

가격제한폭 확대... 투자자 5가지 행동 요령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후 처음 겪어보는 추가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면서 신속한 판단을 중중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은 17년 만의 변화로 수익기회와 손실위험이 그만큼 늘어남을 의미한다. 개별 종목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김효진 교보증권 연구원이 제시한 5가지 행동요령을 참고할만 하다.

◇뉴스 및 공시를 확인한다=정보는 곧 돈이다. 시장에서 개별주식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중에 쏟아지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각종 뉴스와 기업공시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를 접했을 때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뉴스의 본질은 무엇인가, 호재인가 악재인가, 추가로 나올 뉴스는 무엇인가, 주식시장 전반은 현재 강세인가 약세인가 등이다. 검색된 정보가 향후 큰 시세를 낼 것인지 아니면 그때가 주가의 고점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해당 종목의 추가 흐름을 시장 전체 및 업종의 다른 종목들과 비교하고, 그때그때의 뉴스를 점검해보

면 그 기업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고, 때로는 매우 위험한 징후를 감지할 수도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한다=어떤 학생의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 생활기록부를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려면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한다.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재무비율은 해당 기업의 실력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단순히 높고 낮음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왜 이런 값이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파악해야 진정

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럴 때 종이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다.

◇주식 전문가의 투자 의견을 체크한다=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라면 남보다 해당 종목을 빠르게 판단해 매매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기업의 뉴스나 공시가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자료분석 능력이 없다면 증권사 영업직원과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 동향 및 흐름에 대한 판단, 리포트 유무, 목표주가 및 투자 의견 등을 점검한다.

◇나만의 투자원칙을 수립해 실천한다=이는 주식투자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단 주식을 매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새로운 흥분을 경험하게 된다. 보유종목이 변동성을 확대할 때 이익을 실현할 것인지, 좀 더 흐름을 지켜볼 것인지, 추가 매수를 단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목표는 상황 또는 하향할 수 있지만 다소 흐릿할 때는 추가 급등시 욕심을, 추가 급락시 미련을 갖게 하며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손절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손실을 재빨리 받아들이는 것은 실패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상의 후퇴일 뿐이다. 잘못된 투자 포지션으로 인한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같이 변동하는 주가야말로 실제 투자자금을 정확히 평가해주는 가능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투자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백전 불패(百戰不敗)의 공식은 없다.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투자의 목적과 목표달성 여부, 리스크 한도 등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 /연합뉴스

- ① 뉴스와 공시를 확인하라
- ② 객관적인 데이터 확인하라
- ③ 전문가 투자 의견 체크하라
- ④ 나만의 투자 원칙 수립하라
- ⑤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 필요

분양/임대

목포하당 랜드마크에 개원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
백년대로 기독교병원 맞은편 최적의 중심상권에 위치!
아파트 배후세대가 6,000세대의 대단위아파트 조성!

층별	계약면적(㎡/평)	업종	비고
지하층	1,337(404)	주차장	
1층	1,000(302)	은행, 증권사, 약국, 커피숍	
2층	878(265)	은행, 병원, 커피숍	
3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4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5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6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7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8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임대료 3.3㎡당 27,000원 (1,2층별도문의) 관리비 3.3㎡당 8,000원

SL빌딩 임대관리

010-2618-7234
건물주소 목포시 백년대로(상동)

투데이 경매

대인동 중심상업지역
유동인구많은
병원 카페 식당 적합
지하1층~지상4층
대지 780㎡ 건물 1993㎡
감정가 24억7천
최저가 13억8천

화순 금호타운아파트 남측
아파트 밀집지역 최고 상권으로
투자하기 좋은 건물
지하1층~지상2층
대지 424㎡ 건물 993㎡
감정가 9억5천
최저가 7억

운암동 대단위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 PC방, 독서실, 카페 추천
대지 532㎡ 건물 796㎡
감정가 8억5천
최저가 5억9천

여수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아파트 정문 맞은편 위치한
준주거지역 건폐율 70%
용적률 240% 대지면적 3230.2㎡
대형마트, 할인매장 추천
감정가 23억6천
최저가 23억6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